

##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he 7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이 10월 28일 건축사회관(서초동 소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장인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직위원장인 류춘수 건축사(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회장) 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경립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대한건축학회 김광우 회장 등 건축계 정부 학계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이장호 감독 등 영화계 인사와 건축학과 학생, 영화·디자인관련 학과 학생 등 200여명의 다양한 연령층과 분야의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페스티벌아키텍트(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최윤영씨와 건축커뮤니케이터 조원용 건축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석자들의 교류의 장이 된 리셉션을 시작으로 류춘수 조직위원장이 개막선언을 하자 본격적인 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내빈들의 축하 인사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개막식은 윌리제이의 재즈공연이 흥을 돋웠다.

개막식에는 이외에도 건축영화제가 7회를 맞이하며 중견영화제로서 발전하는데 이바지한 자를 위해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집행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김규린 건축사와 조직위원인 민옥조 (주)센트럴투자파트너스 상무이사에게 공로패를, 영화제를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 김영우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어혜진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램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영화제는 “세대공감(世代共感)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까지 6일간 14개국 19개 작품이 상영됐다. 개막식 이후에는 이화여대 ECC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가 상영됐으며 부대행사로 건축철학과 작품을 소개하며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는 HAF(Host Architects Forum)과 건축 및 문화계 전문인사들이 영화에 대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GV(관객과의 대화)가 23명의 전문가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1. 개회사 중인 조충기 회장
2.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최윤영
3. 행사장 입구
4. 개막작 상영
5. 개막식 리셉션

